

A Study on the Minimum Standard for the Annual Increase of Collections According to the Rate of Obsolescence at University Libraries

不用圖書率에 따른 年次增加量에 관한 研究 (上)

孫 正 彪
建國大學校 圖書館

목 차

1. 서 언
2. 불용도서의 개념과 한계
3. 불용도서에 대한 제 견해
4. 불용도서율과 연차 증가량의 관계
5. 연차증가량의 산출방법과 증가수
6. 결 어

1. 서 언

1955년 8월 4일 대통령령에 의해 대학설치기준령이 공포된 이래 현급에 이르기까지 과거 15년 동안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 증가량을 보면 1955년 당시에는 5만 이상 소장한 대학도서관이 4개관에 불과하던 것이⁽¹⁾ 1967년에는 10만권 이상이 12개관, 20만권 이상이 3개관⁽²⁾, 1971년에는 10만권 이상이 17개관, 이중 20만권 이상이 6개관⁽³⁾으로 늘어 실로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음은 기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국대학도서관 실태조사에서도 李春熙씨에 의해 지적된 바와같이 학생 1인당 예산 할당액상으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서 그 책수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볼때 오직 양적 기준만을 설정해 놓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대비하기 위한 양적 증가책의 일환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열가의 책들까지도 분별없이 등록하여 장서수를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현상⁽⁴⁾이었음을 생각할 때 석연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질적으로 보잘 것 없는 자료구성을 이룸으로서 대학 교육의 학문적 성장과 요구에 있어서 뿐 아니라 서고관리에 있어서도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다변화 되어가는 현실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사명을 완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할 것이다.

학문은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이고 동적인 상태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으며 학술, 문화의 변동, 발전, 새로운 학설의 발견과 구학설의 도태 등은 언제나 새로운 요구를 요청하고 새로운 자료를 요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직 한정된 목표량에 도달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적인 자료공급을 등한시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Paul Buck 교수가 모든 교육적 진보는 그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질적으로 훌륭한 도서관이 없이는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란 불가능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진도 확보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⁵⁾ 대학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료원으로서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충분한 교육계획에의 보조뿐 아니라 고도의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부터 고등교육의 정문에 바로 들어 선 신입생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⁶⁾ 그 기관의 교육목적이 요구하고 있는만큼 풍부하고 보다 적절한 장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자료의 가치관 영구불변성이 아니라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 돼가는 학문 영역의 발전과 출판량의 급증에서 오는 도서관 자료범위의 확대에 대한 제한된 예산과 인적 능력의 한계속에 보다 조직화된 구조형성으로 부터의 참신한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란 오늘날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의도도 바로 이러한 고도화 돼가는 지식영역과 지식총량의 확대, 요구범위의 다양화 및 인적 능력과 예산의 제한성이라는 현실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장서구성을 통하여 대학이 목적하는 교육과 연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연차증가 규모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 데 있다.

2. 불용도서의 개념과 한계

우리는 흔히 효율적인 자료관리나 서고관리에 관한

여 언급할 때 자료의 폐기(discard)나, 도태(weeding)나, 제적(withdrawl)이니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불용도서(不用圖書)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들의 개념으로 부터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내놓은 도서관 용어집에 보면⁽⁷⁾ 자료의 폐기란 “더 이상 이용에 부적당하거나 더 이상 오래 요구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이라하고 도태란 “잉여도서(복본), 거의 이용되지 않는 도서,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저장창고로 넘기는 일”이라 하고 제적이란 “도서관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도서의 모든 기입을 도서관 기록으로 부터 제거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불용도서란 곧 문자 그대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이용에 불필요한 도서, 거의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될 수 없는 도서 등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이는 뉴앙스는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때로는 폐기자료, 불적 자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⁸⁾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용도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광의적인 면과 협의적인 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용도서의 유형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⁹⁾

- 1) 파손이나 페이지가 결손된 자료(물리적 손모(損耗))
- 2) 자료내용,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가 오래 되어 사용되지 않는 것(자료의 노화(老化))
- 3) 자료 자체에 무관계한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전염병환자나 유행지에 대출됐던 것, 증거물건으로 압수 또는 지정된 것 등(사회적 제약)
- 4) 일시적인 요구에 의해 구입된 것으로 이용되지 않는 복본,
- 5)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불용도서의 유형은 물리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및 사회적인 제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임의적인 것을 총괄하여 의미하는 광의의 불용도서와 오직 자료내용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이용율이 낮아진 도서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불용도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불용도서는 정보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오는 독자의 요구도에 부응하여 수집된 정보자료의 경제적인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하여 단지 정보의 이용가치면에서 시간적 종속적인 수명의 감퇴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거나 이용이 露에 가까운 도서까지를 포함시켜⁽¹⁰⁾협의의 불용도서만으로 한정시켰으며 폐기도서와는 다른 개념에서 그 문제점들을 논급하기로 하였다.

3. 불용도서들에 대한 제 견해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천해 가면서 정보자료의 범위와 생산량의 절대 증대에 따라 일면으로는 자료의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양적 증대와 아울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적 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한편, 일면으로는 한정된 공간속에서 서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용도가 낮은 불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처리에 신속하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증대하기로에 처해 있다 하겠으며 K.B. Downs의 말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난점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이처럼 현실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참신한 자료의 양적 증대 문제와 더불어 “학생과 교수들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그들의 자료 이용에 있어서 노력과 시간을 절약”⁽¹²⁾시켜 주기 위한 불용도서의 측정과 처리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부터는 수학적인 공식을 도입, 요소분석에 의한 함수관계로부터 이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¹³⁾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도서의 이용가치의 수명과 불용도서들에 대한 몇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주어진 자료의 특성과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약간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겠지만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C.F. Gosnell은 기본도서목록 3책, 19과목의 도서관 료에 대한 불용도서를 산정한 결과 Shaw의 「대학교서관용 도서목록, 제2판」 Chicago, ALA, 1931, 1940의 10년간에 수록된 도서로 출판후 10년 이상이 된 도서는 수록된 전 도서량에 대하여 연 8.1%의 불용도서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어느 도서관이나 10년이내에 매번 폐기자료의 문제를 재연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⁴⁾ 한편 R.H. Logston은 1900년부터 1940년까지 사회학의 교수자료의 폐기율을 조사한 결과 1900년부터 1920년 당시에는 높은 지수의 유용성을 가진 도서가 1930년부터 1940년에 걸친 조사에 의하면 약 반수가 폐기시킬 것이라 하고 이는 다른 교과과정의 범위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있어⁽¹⁵⁾ 단적으로 표현해 볼 때 1630년부터는 연평균 5%의 불용도서를 보여주는 셈이 된다.

이에 반하여 A.K. Jain은 도서관 자료의 평균 대출은 수서이래 연 6%, 출판이래 연 4.5%의 비율로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으며⁽¹⁶⁾ 이와같이 “출판이나 수서이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평균 대출의 계속적인 하락현상은 Chicago 대학에 있는 Fussler와 Simon의 공동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⁷⁾한다. 이를 기

조로 하여 그 자료의 수명을 측정해 보면 자료이용 가치가 반으로 주는 기간은 8.4년이 될 것이고, 10년 경과후면 이용가치가 40%로 떨어지게 되어 결국 16년이 경과하면 이용률은 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유경희씨는 1969~70년에 발행된 총 1,514편의 국내의 논문에 수록된 과학 문헌에 대한 반감기의 측정결과 외국문헌은 전문분야의 반감기가 8년, 국내문헌은 전문분야가 1.56년으로 나타났다고(18)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외국문헌의 경우 그 반감기는 Jain의 주장과 비슷하게 나타나 연 6.3%의 지속적인 불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N.E. Tanis(19)는 새로운 발견과 기술상의 진전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공학계 도서의 수명을 5년으로 보아 그 자료수명이 다른 자료에 비해 보다 짧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반면 P.M. Morse(20)는 MIT 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서관들은 그 수명에 따라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가 그 다음은 20년 경까지 약 2년에 1번의 율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하고 첫번째 5년동안은 평균 대출률이 연 2배이며 다음 5년 동안은 연 $\frac{1}{2}$, 10년 이상의 나머지 수명기간 동안은 연 $\frac{2}{3}$ 로 이 현상은 최소 20여년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여 이에 의하면 도서수명이 반으로 주는 기간은 10년으로 연 5%의 지속적인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밖에 J.D. Brown,(21) M. D. Carter와 W. J. Bonk(22) 및 竹林熊彦(23)는 불용도서 결정의 일반준칙으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자료폐기 여부와 보존기간을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불용도서율과 자료의 수명에 대한 제학자들의 견해는 자료의 성격과 시대적 내지 주어진 환경 등 조건조성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들여본다면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기준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5~10년 전후가 수명의 반감기가 아닌가 여겨져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연차 불용도서는 일반적으로 수집된 이래 매년 5~8%의 지속적인 불용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함이 통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次號에 繼續)

<註>

- (1) 文教要覽, 檀紀4288年 12月末現在(서울: 文教部, 1965) pp. 407~410
- (2) 韓國圖書館一覽, 1967年 3月 31日 現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17) pp.20~24.
- (3) 한국도서관통제, 1971年 2月 28日 現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p.419
- (4) 李春熙, “大學圖書館篇”,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149.
- (5) Paul Buck, Libraries and Universities, Addresses and Reports, ed. by Edwin E. William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p.9~10.
- (6) ACRL. Standard Committee.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

準”, 李炳穆 譯. 도협월보, 4권(1963, 3) p.22.

- (7) ALA, Glossary of Library Ternus with a Selection of Terms in Related Fields, (Chicago: ALA, 1964)
- (8) L.R. Wilson, M.H. Lowell and S.R. Reed, 大學의 圖書館, 渡邊正亥, 星野博一 共譯,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59) p.10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效果에 關한 研究.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65) p.50.
- (9) 專門圖書館協會編, 資料管理ガイドブック(東京: ガイキモント社, 1965) p.160.
- (10) 柳京熙, “科學情報의 壽命測定”, 도서관 26권(1971, 7) pp.4~5.
- (11) Robert B. Downs, “Crisis in ou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and Research Libraries, 22 (January, 19 61) pp.7~10.
- (12) 安永柱, 前掲書, p.50.
- (13) 柳京熙씨에 의하면 1960년에 핵물리학의 반감기(半減期)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자료의 수명을 측정한 바 있는 R.E. Burton과 R.W. Kebler의 “The Half-life of Som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s,” American Documentation, ll. no.1, 1960 이 최초의 논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柳京熙, 前掲書, p.4
- (14) Charles F. Gosnell, The Rate of Obsolescence in College Book Collections, as Determined by an Analysis of Three Select Lists of Books for College. Libraries, New York University, 1943을 인용한 L.R. Wilson, M.H. Lowell and S.R. Reed, 大韓의 圖書館. p.10에서 재인용.
- (15) R.H. Logston, The Instructional Literature of Sociology an the Administration of Library Book Collections, University of Chicago, 1942를 인용한 上掲書, 同面에서 재인용.
- (16) A.K. Jain, “A Sampled Data Study of Book Usage in the Purdue University Libraries,” (Lafayette, Ind.: Purdue Unverssity, 1965)를 인용한 F.F. Leimkuhler, “Systems Analysis i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February, 1966) p.13에서 재인용.
- (17) 上掲書, 同面.
- (18) 柳京熙, 前掲書, p.4.
- (19) Norman E. Tanis, “The Departmental Allocation of Library Book Budget Funds in Junior College. Developing Criteria,”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5(Fall, 1961) p.323.
- (20) Philip M. Morse, Library Effectiveness; a System Approach, (Cambridge, Mass.: MIT Press, 1968) pp. 89~90.
- (21) J.D. Brown은 이학서, 기술서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후에 양서가 될 경우 20년경에 제적하고 여행안내서류는 지방적 의의가 있는 것은 10년에, 개인전기는 40~50년 후에 제적토록하고 있다.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ハンドブック, 增訂版(東京: 同協會 1965) p.263.
- (22) M.D. Carter와 W.J. Bonk는 순수과학 중 보통 교과서는 10년되면 제적하고, 응용과학은 대부분 5~10년에, 여행기는 10년이상 경과할 경우 제적토록 하고 있다.
M.D. Carter and W.J.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New York: Scarecrow Press, 1969) pp. 140~146.
- (23) 竹林熊彦, 圖書的選擇一理論と實際—(東京: 蘭書房, 19 55) pp.166~167.